CARITAS WONJU

2008년 가을·겨울 〈제17호〉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NONPROFIT
US POSTAGE
PAID
MERRIFIELD, VA
PERMIT 489

산타가 되어주세요 8면 사진촬영: 지수성 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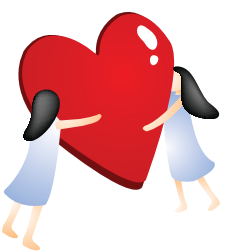
8 산타가 되어주세요

10 카리타스 후원 교회를 찾아

13 빛의 천사-목소리로 나누는...

16 파푸아뉴기니의 선교사들

29 사랑의 후원자님을 찾습니다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 571-432-9868 / 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caritaswonjuva.com

글 싣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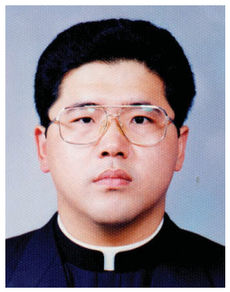
2. 고국에서 온 편지 – 우리의 희망 ····· 고정배 신부
카리타스란
3. 용서를 통해 더욱 충만해 지는 이민생활····· 곽호인 신부
회원기도문
4.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유홍열
5. 비워냄으로 채워지는 '행복' ····· 정영희 기자
6. Take Action 실천하라····· 이소영
7. 하느님 사랑, 아버지 사랑 김 데레사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오광수
8. "산타가 되어 주세요"····· 정영희 기자
9.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정영희 기자
10. 카리타스 후원교회를 찾아서 천주교회
-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문화부
11. 광고 - Rachael Kim
12. 광고 - Euromotor
13. 빛의 천사 - 목소리로 나누는 사랑 겨자씨····· 김마리 수녀
14. 사랑의 모금통 설치업소를 찾아서 윤경자
Yes! Organic Market 차명학 대표
15. 사랑의 모금통 설치업소를 찾아서····· 차명자
16. 나누면 나눌수록 풍요로워진다····· 정도영 신부
- 파푸아 뉴기니의 선교사들
18. 요리조리 달콤한 돼지갈비····· 이민정
20. ROAD to RELAXATION····· 이소영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
22. 이디어 손자병법 - Food····· 이소영
23. 살레시오의 기적····· 장성환
24. 견진성사를 받고 ····· 박라우렌시오
애모 (주교님께 불러드리는 감사 노래)····· 장해영
25. 세상이 두려운 소녀 유 헬레나
행복한 밥상 - 제천 노인종합복지관
광고 - C&C media
26. 후원회비를 보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7.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입금액 보고
28. 사랑을 함께 나누실 회원이 돼주시겠습니까?
후원회 사무실
29. 고국 아동결연 소개
30. 광고 - 강원근치과, Kim's Auto Service
Lucia Kang, Fairfax Memorial Park
31. 광고 - Charlie H. Hong, 정경한의원
차명자 치과, 윤경자 치과
32. 칸 라디오

고국에서 온 편지

우리의 희망

고정배(요셉)신부

〈강원도 고한성당/흑빛 청소년 문화센터〉



+ 찬미 예수님! 먼저 후원회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눔에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고한 본당과 흑빛 청소년 문화센터(흑빛 공부방)의 소임을 받은 지, 이제 겨우 1년도 안 된, 사회복지에서는 왕 초보 신부입니다.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기에 지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고, 볼품없는 생각이지만 용기를 내어 열어 봅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답답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분은 전지전능하신데 - 세상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만 마음은 무겁고 답답합니다. 하느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한 이들에게 필요한 변명을 찾기도 너무 힘듭니다. 특히 자신의 탓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그 상황을 견뎌야 하는 어린 공부방 친구들을 볼 때, 답답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을 꿈꿔 봅니다. 그 분께 슈퍼맨이 되어 달라고 매달려 봅니다. 아니면 나에게 슈퍼맨과 같은 능력이라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떼를 써봅니다. 아니 그 흉내를 내어 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무작정 덤벼 봅니다. 그 욕심에 신부라는 직분에 어울리지도 않는 잔꾀도 부려 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바닥을 드러낸 자신과 돌아오는 부담뿐 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기를 쓰고 행한 것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에 마음이 쓰립니다. 신부를 바라보는 시선에 중압감을 느낍니다. 현명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히려 무기력 하게만 보이는 그 분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무기력 하게만 보이는 그 분의 방법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분의 무기력한 십자가의 방법에서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니 더 낮은 곳을 선택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사자인 나 스스로가 외면해 버린 아픔이 그 분에게 가서 꽂힘을 봅니다. 그 사랑에서 아픔을 봅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던져 버린 고통과 어려움을 나 대신 짊어진 그 분을 만납니다.

오늘도 세상의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고 일하시는 신부님들과 봉사자들께 존경을 드립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무기력하다는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분께 흠숭을 드립니다. 그 분처럼 그렇게 함께 하는 법을 빨리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사랑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후원회원님은 정말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분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후원회원님께 존경을 드립니다.

카리타스(Caritas)란?

라틴어로 '카리타스(Caritas)'라고 쓰며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카리타스는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업을 말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하는 기구나 단체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마 바티칸 시국에 있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와 전세계 198개 나라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4개 카리타스는 상호협력함으로써, 특히 제 3세계 국가의 구호 및 복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더욱 충만해 지는 이민 생활

곽호인 베드로 신부
〈카리타스 이사장/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주임신부〉

제가 이곳 워싱턴 버지니아에 온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이사장 글을 통해 여러분과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알링톤 교구에 적응하려고 애를 쓰면서 다른 생활방식, 사고방식, 문화적인 관습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민 생활의 정착과 이민 생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와 너무 다른 문화적인 관습을 지닌 이곳에 와서, 모험에 가까운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분들이며 홀로 서기에 성공하신, 즉 자수성가하신 분들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 땅에 와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자식들을 가르치고 후손들을 남기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자리잡게 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준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나라 아닌 외국 땅에서의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인 1.5세나 2세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겪은 고통과는 다르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민자로서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자식들을 기르고 가정을 지키고 삶의 터전을 닦다 보니 온통 신경이 곤두서게 되어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용서를, 용서를 통해 행복한 마음 되찾기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에 받은 상처가 있다면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외롭고 어려운 이민생활에 이웃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마음에 남겨두면 자신을 좀먹게 마련입니다. 용서라는 자기 구원의 행위를 통해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느끼도록 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아래처럼 해 보세요. 마음이 행복해 집니다.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뿐입니다."

용서하는 데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에 필요한 상처의 치유는 상처를 준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평화를 찾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나를 아프게 한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용서 콤플렉스에 빠지지 마십시오. 용서를 위한 용서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찾고 변화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용서는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까지 바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용서를 하기로 결심하고 나서도 마주칠 때마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내 탓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인은 용서하기로 다시한번 결심하고 주님께 작은 기도라도 바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서한 것입니다.

〈참고 : 성서와 인간-1 [상처와 용서] 송봉모지음 1998년 바오로의 딸〉

사랑 충만한 마음으로 내일 만들기

그리고 요즈음 불경기가 심해져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갖고 이겨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행한 처지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맨손으로 미국 땅에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자식들로 하여금 미국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용기 있는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수난하시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자식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어 주는 것이 최선의 삶을 이루어 내는 이민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이러한 불경기로 인해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낯설고 물설은 땅에 처음 이민 왔을 때처럼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자신 있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기도문

모든 이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봉헌되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 대한 굳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주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사랑 닮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희생과 기도로
주님 모상이 우리와 이웃 안에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두 손 모아 간절히 청하오니
교회로 하여금 세상 안에
주님 뜻을 식별하여
죄와 온갖 고통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의
성사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모든 이를 돌보는
성직자, 수도자와 봉사하는
모든 이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는
당신 모습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원주 카리타스에 함께 하시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랑의 작은 불꽃 모임이 되어
주님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도구되게 도와주소서.

사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과 하나되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유홍열 〈원주카리타스 후원회장〉

신문에 기사로 나가기도 했고 후원회 안에서 이메일등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후원회지에 글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신임회장 입니다.

처음 김데레사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사임의 뜻을 밝히셨을때 위로는 재단이사장이신 곽호인신부님, 원주복지회 최기식 신부님부터 아래로는 운영이사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번 권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모아진 결과이기는 하겠지만 그 앞장에 서서 후원회를 이끌어온 김데레사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이만큼 커진 후원회를 생각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후원회에 관여하게 된것은 2005년 무렵이고 그 이전의 후원회 사정은 직접 아는것은 없지만 전해 들은 바로는 성당 안에서 적은 숫자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모아진 후원금을 원주복지후원회로 보내주는 소박한 후원회였던듯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활동에서 김회장님은 적극적으로 후원회를 알리는데에 주력하여 신문과 방송사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한편 회지를 직접 편집하고 발행하여 여러 교민 업소에 비치하여 우리 후원회가 널리 알려지며 성당 밖에서도 많은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법인으로 독립하고 비영리 자선단체로서 인가를 받아 모든 후원금을 세금공제 받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후원회비에만 의존하는 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석장터나 골프대회, 음악회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한 모금방법도 모색하여 좀더 많은 후원금을 확보하여 해외후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본인의 사정을 말씀하시며 회장을 맡아보기를 부탁하셨을때 이런 후원회의 발전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도저히 그 역활을 맡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추진력도 부족하고 후원회를 생각하는 열정도 부족한데다 성격 또한 앞에 나서기보다는 사진 찍을때 마저도 뒷줄에 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생각나는 일을 바로 해 치우기 보다는 한번 먼저 미루고보는 편이라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김회장님도 휴식이 조금 필요 하신듯 하고 주위에서 열심히 도와주신다고 해서 일단 맡게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니 크게는 역사상의 일들도 그러하고 작게는 기업이나 단체의 일들도 뛰어난 인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원회에도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이끌어주실 분이 언제고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그 분을 기다리며 지금의 후원회를 잘 관리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이 제가 해야할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주가 모자라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이 혼자 일하기는 힘드니까 모든 자원봉사자,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도 큰 도움을 주셨지만 회장이 잘 모르는 사람으로, 혹은 맘에 안드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등 돌리지 마시고 우리들의 목표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모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모자란 점이 많더라도 최선을 다해 후원회가 한 발 더 나아가도록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워냄으로 채워지는 '행복'

정영희 기자 〈워싱턴 한국일보·카리타스 편집인〉

편집인 데스크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러면 과연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이처럼 중요한 삶의 목표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흔히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좋은 집과 비싼 차, 자녀의 명문대 진학, 명품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외모, 아니면 돈 잘 벌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

돈과 건강, 가족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성취감, 낙천적인 태도 등등이 행복의 주 요소라는 것은 틀림없다. 여기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이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필수 요소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밥을 굶으면서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 충분한 돈이 과연 행복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각 개인마다 기준이 틀리고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행복을 '주관적 웰빙(well-being)'이라고 정의한다. 이들이 행복을 계량화해서 발표하는 게 행복지수다.

영국의 신경제학 재단(NEF)이 올해 발표한 178개국의 행복 지수(Happy Planet Index) 순위에서 호주 부근의 작은 섬나라인 바누아투가 1위에 선정됐다. 여기서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한 항목은 삶의 만족도(Life Sat.), 평균 수명(Life Exp.), 환경적인 요건(EF/에너지 소비, 생존에 필요한 면적)이다.

1만1800㎢의 면적에 8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바누아투의 인구는 2004년 기준 19만명이며, 번지점프가 유래된 나라로 유명하다. 바누아투의 마르케 로웬은 "이 곳 사람들은 작은 일에 크게 만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복해 한다"면서 "바누아투의 삶은 공동체와 가족, 타인에 대한 선의에 대한 것이고 많은 것을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태풍과 지진만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바누아투 다음으로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등이 상위권에 올랐으며 한국은 하위권인 102위에 랭크됐다.

이 조사에서 입증되듯이 행복지수는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빈국의 사람들은 이웃들도 가난해 상대방과 비교할 때 생기는 '상대적 열등감'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긍정의 힘'이 지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정치·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중남미 국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점도 눈길을 끈다. 이 경우 끈끈한 가족간의 유대 즉 '패밀리 밸류(Family Value)'가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행복지수를 요약하면 관계의 총체, 삶에서의 질적·양적인 관계의 총체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잊고 끊임없이 '더 많이 많이'를 추구하며 소박한 삶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10월 워싱턴에서 특강한 '한국인 당신의 미래'의 저자인 오종남 박사(전 IMF 상임이사, 서울대 교수)는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가진 것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욕망을 줄이는 것 또한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것을 나눔으로써 나의 행복지수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방향으로 '나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쉬운 것부터' 바꿔 나간다면 우리 가슴에 행복이 가득할 것이라는 얘기다.

낙엽사이로 가을이 깊어간다. 오늘은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별을 찾아보며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음미해야겠다.

이 가을 내가 가진 유형무형의 것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어 놓고, 용서의 미덕을 배우며 끝없는 욕망, 세속의 미움과 노여움, 섭섭함 등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내는 연습을 해야겠다.

TAKE ACTION 실천하라

이소영 〈원주카리타스 편집인/전 내셔날지오그래픽 한국판 편집장〉

기발한 아이디어와 탁월한 재능을 가졌더라도 실천력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어떤 일이든 창조하거나 성취하려면 아이디어나 재능보다는 실천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창조력이란 새로운 생각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것까지 아우른다. '1%의 영감과 99%의 땀'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99%의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Remember, there are no shortcuts.(지름길이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A thousand-mile journey begins with the first step.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Deliberate slowly, execute promptly.
천천히 생각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라.

You get the energy and the enthusiasm for the job after you begin. You get the energy as a result of your involvement. The secret is to make a start. - Andrew Matthews, Follow Your Heart
시작하고 나면 일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생긴다. 일에 몰두하면서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비결은 시작하는 것이다.

You get motivated by doing things, not thinking about them. Action gets you excited and action reveals opportunity. Take the plunge. - Andrew Matthews, Follow Your Heart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의욕이 생긴다. 실천하면 신이 나고 기회도 생긴다. 모험을 하라.

You can have many great ideas in your head, but what makes the difference is the action. Without action upon an idea, there will be no manifestation, no results, and no reward. - Don Miguel Ruiz, The Four Agreements
머리 속에 아무리 멋진 생각들이 많더라도 차이를 만드는 건 행동이다. 생각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실현되는 것이 없으며, 결과도, 대가도 없다.

입으로만 실천하고 몸으로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소위 실없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신용도 잃고 가까운 사람들도 주변에서 하나 둘 떠나버린다. 눈, 귀, 콧구멍은 모두 둘이나 입은 하나임에 주목하라. 상대방의 말은 잘 듣되, 말하기는 자제하라는 창조주의 경고일지 모른다. 두번 듣고 한번 말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The greatest talkers are least doers.
가장 말 많은 사람이 가장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All hard work brings a profit, but mere talk leads only to poverty. - Proverbs(잠언) 14:23
열심히 일하면 이익을 얻지만, 말만 해서는 가난해질 뿐이다.

You can't build a reputation on what you're going to do. - Henry Ford
앞으로 하려는 것 위에는 명성을 세울 수 없다.

Only commit to something if you know you will follow through. If necessary, make fewer promises and fewer commitments, but whatever you say you'll do, do it. Gradually your word becomes law for you and that's when you really believe in yourself. - Andrew Matthews, Follow Your Heart
자신이 끝까지 해낼 것이라고 생각될 때에만 그 일에 착수하라. 필요할 경우 약속은 덜 하고 책임질 일은 줄이되, 하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꼭 지켜라. 그러면 점점 자신의 말이 자신에게 법이 되며,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믿게 된다.

Be it! Don't just say it.
Live it! Don't just pray it.
Do it! Don't forget it.
Give it! Don't just get it.
되어라! 말만 앞세우지 말고
실천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행하라! 잊지 말고
줘라! 그저 받지만 말고.

하느님 사랑, 아버지 사랑

김데레사 〈원주카리타스 운영이사〉

화창한 가을 하늘을 바라본다. 여느 때 보다 더 푸르르다. 포근함이 온 몸을 감싸 주는 듯하다. 온갖 사물이 마치 하느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에워 싸여 있는 것 같다.

카리타스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그 행사를 통한 사랑모음을 이루려 늘 고민한다.

지난 5월 4일 '제3회 자선의 밤 - 지구촌 불우아동돕기 가수 이동원 콘서트'도 그 중 하나로 지구촌의 열악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고자 마련한 행사였다.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행사 전반에 걸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 밀고 나가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내내 작은 것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행사에는 늘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불편함 없이 푸근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봉사팀은 늘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 애쓰게 된다.

이동원 콘서트는 두 주간의 짧은 홍보기간을 거쳐 준비되었고 마침내 행사 당일 일요일 아침이었다. 부진한 티켓 판매의 마지막 실적을 올리기 위해 아침 일찍 성당으로 향했다.

첫 미사가 끝나고 신부님께서 친교실로 나오셨는데 이게 웬 일인가! 가슴에 커다란 종이를 붙이시고 티켓 판매에 나서신 것이다. 그 옆에는 점잖으신 사목회장님도 함께 소매를 걷어 부치셨다. 그 동안 이런 일 저런 일로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성당 어르신들께 까지 수고를 끼쳐드리는 것이 무척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 이런 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그 모습이 아픔으로 다가오는지…

곧 이어 대미사가 시작되었다. 미사시간 내내 밀려오는 아픈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몰랐다.

제대 위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는 신부님, 육 천명의 신자가 있는 이 성당의 가장께서 당신 자신을 다 내려 놓으시고 도와달라시며 구걸(?) 하시던 모습! 아… 나는 어찌되어도 괜찮지만…

공연은 잘 끝났다.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고, 좋은 공연이었다고 흡족해 하시며 고맙다는 인사들도 하셨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어둡기만 했다. 복지 일이란… 이런 마음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건지 머리 속이 복잡했다.

그렇게 힘들기만 했던 며칠이 지나고 어느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니 왠지 머리가 맑아지고 파란

하늘이 아침 햇살에 빛나 더욱 푸르러 보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의 번잡함이 차분히 정리되고 있었다.

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문전박대도, 외면도 마다치 않는 분. 그러한 아버지의 말없는 희생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결국 이웃의 어려운 자녀들에게까지 골고루 양식을 나눠 줄 수 있는 크나 큰 마음! 이것이 아버지 사랑! 바로 하느님 사랑이구나!

나의 마음은 밝아졌다. 그간 머리로만 상황을 보고 보여지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괴로운 마음을 가졌던, 얄팍하기만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면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느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성서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나 부모를 다 버려야 한다"는….

그 말씀 속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를 위해 진귀한 보물을 준비해 놓은 것임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느끼고 듬뿍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그만인 것을…

그 동안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깨끗이 가시고 새로운 힘이 솟구쳤다. 자, 다시 전진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오광수

아침 동편 창을 열고
당신의 밝음을 맞아들임은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도
불평 아닌 감사하는 마음이게 하소서
생각보다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보다는 용기를 주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한 행동으로 상처주지 않게 하셔서
모두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오늘을 소중하게 지내게 하소서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을 향한 작은 이정표라도 되게 하소서

당신이 내게 주신 큰 은혜를
하나하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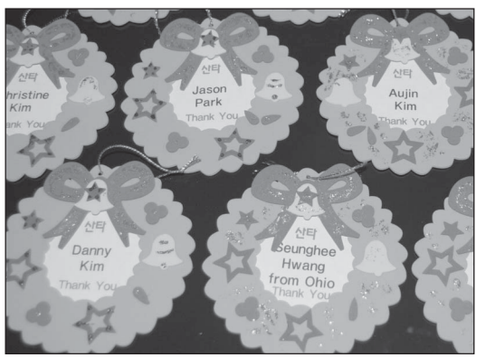
“산타가 되어주세요”

원주 카리타스 기프트 트리 캠페인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연말을 앞두고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은 성탄절에 맞춰 한국과 네팔의 불우어린이들이 소망하는 선물 내용을 적은 카드를 ‘기프트 트리(Gift Tree)’에 걸면 후원자들이 이를 보고 결연하는 방법이다.

카리타스 이사장인 곽호인 신부(성 정바오로 한인성당 주임신부)는 “이들 어린이들이 원하는 선물은 학교 갈 때 입는 옷, 운동화, 책가방, 밥솥 등 생활용품이 대부분”이라면서 “금융위기로 다들 어렵지만 가난한 어린이들과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홍열 후원회장은 “장기불황이라 콘서트, 골프대회 등 기금 마련 행사를 모두 접고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해보는 행사”라고 소개했다.

1인당 후원금은 20달러.

한국에서는 원주 가톨릭 종합 사회 복지관과 중증 장애인 시설 천사의 집, 아동시설 대철 베드로의 집 등에 거주하는 300여 명이, 네팔에서는 샨티 라니 스쿨, 네팔 돈 보스코 스쿨 등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어린이 377명 등 총 700여명이 신청했다.

김데레사 홍보 운영담당이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 결연해 주고 있다. 특히 어린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호응이 크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성 정 바오로 한인 성당에서는 내달 초부터 성당 입구에 기프트 트리를 설치한다. 후원자에게는 아동의 편지장식이 전달되며 트리에는 후원자의 이름이 적힌 초록색 크리스마스 화환이 걸리게 된다.

후원금은 아동을 추천한 각 복지시설이나 학교로 송금되며 각 기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산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구입해 성탄절에 선물을 전해주게 된다.

카리타스는 기프트 트리를 설치할 한인 업소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다.

산타신청(수표는 Caritas Wonju 앞으로) :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문의(571)432-9868 정영희 기자

몸과 마음을 아름답게 …

원주 카리타스, 라인댄스 초급 2반 개강

모금위해 DVD도 제작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사장 곽호인 신부, 회장 유홍렬) 후원을 위한 라인댄스 초급 2반이 20일 개강했다. 그동안 초급반은 여러번 개설했지만 초급 2반이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

초급 2반에는 김명희, 이숙자씨 등 12명이 등록, 매주 토요일 오전 성 정 바오로 한인 성당 교육관에서 홍 세실리아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첫 강좌에서 40-60대의 수강생들은 현재 유럽에서 유행중인 라인댄스 '얼레디 건(Already Gone)', '저스트 갓 페이드(Just Got Paid)', '차차 오브 러브(Cha Cha of Love)'를 배웠다.

초급 2반은 카리타스가 지난 봄 발간한 라인댄스 초급반 DVD에 이어 불우이웃돕기 홍보용 라인댄스 DVD 제작 녹화에도 동참한다. 연말경 제작 완료될 초급2반 DVD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쓰여진다.

카리타스 김 데레사 홍보담당운영이사는 "수강자들은 초급2반 DVD제작에 어려운 이웃돕기 홍보대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참하고 있다. 다들 중년의 아마추어로 부끄러움을 접고 용기를 내어 홍보에 적극 참여해 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 봄에 제작된 초급반 DVD 구입은 카리타스 후원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571)432-9868 정영희 기자

올 크리스마스 선물은 불우이웃돕기와 함께 따스한 마음을 나누어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라인댄스 초급 DVD (98분용) 특별 세일 합니다.
- 강좌 및 시범, 음악이 곁들여진 따라하기로 구성
- 성탄 특별할인 $25 (송료포함)

구입하실 분은 아래 주소로 수표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Caritas Wonju (수표의 지급인 란에는 Caritas Wonju로 써 주십시요.)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컴퓨터 수리·문제해결
NO! 엉터리 수리 바가지 가격

각종 바이러스 퇴치
유,무선 인터넷 설치
각종 컴퓨터 문제해결
느린 컴퓨터 원상복구
컴퓨터 교육
-초보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등 고급 그래픽까지 교육
(703) 635-0115 ~ 6

STUDIO 사진·비디오
·VIDEO
·PHOTO
·DESIGN

사진·비디오 촬영
영상물 편집·제작
인쇄, 각종 디자인
전직 방송PD 출신, 고급장비 보유
가정에서 촬영후 보관중인 비디오 테이프 편집, DVD제작
(703) 503-0308 Cell (703) 635-0115

카리타스 후원 교회를 찾아서

설립 22주년을 맞이한 이민자의 안식처 -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문화부

"떠나온 고국을 그리워하며 이 성전을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바칩니다"

고국을 떠나 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민자라면 이 문구를 읽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낯설고 물 설은 머나먼 이국 땅에 혈혈단신으로 들어와 부초처럼 살아왔을 이민자의 설움과 고뇌,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세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한 이 문구는 바로 버지니아 패어팩스에 위치한 한인성당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의 머릿돌에 새겨져 있는 문구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서쪽 버지니아(Virginia)의 패어팩스(Fairfax)에 위치한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쇼핑공간으로 잘 알려진 패어옥스 몰(Fair Ox Mall) 인근의 월마트와 코스코가 멀지 않은 한적하고 호젓한 곳에 아름답고 규모있게(대지 7.5Acres-9천평, 건물 5만6천SF-1천6백평) 지어져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고 있다.

금년 9월로 설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는 현재 등록 신자수 6,000여명에 주일 평균 출석 교인 2,000여명의 대형 천주교회로 성장 했으며, 이제는 재정적으로도 자립을 하여 지역과 한인사회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알찬 성당이다. 성당 내에는 공동체 모임이 활성화 되어 현재 14개 구역, 48개의 소공동체가 운영 되고 있다.

알링톤 교구 소속의 한인성당인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는 1981년 메릴랜드의 칼리지 파크(College Park)에 한인들을 위한 성 김 안드레아 천주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태동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알링턴 교구는 너무 먼 거리 때문에 불편해 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1985년 교구 내에 한인 공동체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이듬해인 1986년 9월 26일 정식으로 한인 공동체를 전담할 한국인 사제가 부임하게 되었다.

1986년 10월 5일, 첫 미사가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있는 St. Bernadette 성당에서 봉헌이 되었고 주보성인은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정식 명칭은 St. Paul Chung Korean Catholic Community 로 명명 되었다.

버지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분가한 후 신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1995년에 현재의 성당을 완공하였다. 이듬해인 1996년 2월에 알링톤교구의 61번째 정식 본당으로 승격되고 명칭도 Mission에서 Parish로 변경되어 지금의 명칭인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St. Paul Chung Catholic Church)로 격상이 되었다. 그 이후 신자수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초대 박용식 시몬 주임신부님(86년 9월~91년 4월)을 필두로 제 2대 김성훈 스테파노 신부님(91년 4월~ 93년 10월), 제 3대 신현만 시몬 신부님(93년10월~98년 11월), 4대 박순신 프란치스코 신부님(98년 11월~ 03년 2월), 제 5대 김용성 다두 신부님(03년 2월~ 07년 10월) 등 5명의 주임신부님과 4명의 보좌신부님들이 본당을 거쳐 가셨고 성당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는 두 분의 신부님과 두 분의 수녀님께서 상주하는 대형 성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난해 10월, 6대 주임신부님으로 새로 부임하신 곽호인 베드로 신부님은 내실을 다지면서 지역사회와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대형 천주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온 교우들이 합심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성당의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도회 안에 "미래사목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성당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성당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하나 하나 실천 해 나가고 있다.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는 지난 4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는 성당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우들의 의견과 불만,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전교우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것이기도 하다.

미사안내
주일미사: 8am, 10am, 11:40am(ENGLISH MASS), 5pm
토요특전미사: 7:30pm
평일미사: 수요일(11am), 화, 금요일(7:30pm)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홈페이지 : www.stpaulchung.org
주 소 :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문의전화 : 703-968-3010

유아영세식

하상한글학교 학예회

교우들의 희망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포함된 이 설문조사는 곽호인 주임 신부님과 이봉기 사도회장의 지휘아래 이미 분석을 마치고 성당 마스터 플랜에 반영하여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런 치밀한 분석과 계획 하에 마련된 장기 비전을 가지고 교우들의 신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성정바오로 천주교회는 교우들과 한인들을 위한 복지와 봉사활동에도 많은 애정을 쏟는다.

현재 본당 내에는 라인댄스, 컴퓨터, 양재, 비즈공예, 꽃꽂이, 영어회화, 성경강좌 등 각종 이민생활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강좌 등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으며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매 주일 각종 미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및 고충상담, 그리고 이민 변호사의 무료 이민상담 코너 등을 마련해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월 1회 한방 의료강좌,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자녀교육 강좌 및 상담, 생활법률 강좌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강좌를 무료로 개최해 교우들과 한인들의 이민생활을 돕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민 1.5세 및 2세 청소년들을 위한 정체성 확립과 떠나온 한국의 고유문화를 지키고 한글을 잊지 않도록 한글과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별도의 한국학교와 주일학교가 개설되어 청소년 사목과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언제나 화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활기찬 교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는 소외된 이웃과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도움을 주는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비영리 복지 후원기관인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구상의 마지막 오지로 꼽히는 파푸아 뉴기니의 선교사업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것이 한 예 이기도 하다.

앞으로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는 복음전파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본연의 종교적 사명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고단한 이민생활에 지친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진정한 영육간의 쉼터로서, 또한 정신적 지주로서, 때로는 이민생활을 향한 디딤돌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모국을 점차 잊어가고 있는 1.5세 이상 자녀들을 위한 한국문화의 계승과 습득의 장으로, 그리고 한인문화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문화사절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외된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 센터 건립 및 운영 등 사회복지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봉사와 나눔이라는 명제를 늘 되새기며 지역사회에는 등불이 되고 한인 이민자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는 은혜로운 성당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http://www.Rachaelkim.com

RE/MAX Gateway

Outstading Agents
Outstading Results.

Rachael Kim
(Broker licensed in VA/MD/DC/IL)
ABR/CNHS/ASP/IAHSP
O : 703-652-5790

RE/MAX GATEWAY 703.774.8945
4090 B Lafayette Center Dr., Chantilly, VA 20151

EuroMotorcars
7020 Arlington Road • Bethesda, MD 20814

Mercedes-Benz

2008 C-Class

벤츠!

순/간/마/다/예/술/입/니/다

20년간의 자동차 세일즈 경험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USTIN HAN
유스티노 한
Direct 301.215.5491
Cell 703.855.8710
Main 301.986.8800

©ASIAN MARKETING SERVICES

♥도서목록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http://omni.or.kr나
원주카리타스복지재단 홈페이지:
www.caritaswonjuva.com로 들어가시면 도서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동장애인 복지관
02-2290-3110, 이메일: hope-amor@hanmail.net

빛의 천사
목소리로 나누는 사랑
녹음봉사회 겨자씨

김마리 수녀 〈서울 성동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마장동에 위치한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홍보실에는 작은 녹음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녹음봉사회 겨자씨 회원들은 매일 책을 녹음한다. 이 겨자씨의 활동은 1993년 복지관의 개관과 함께 시작되었다.

녹음도서는 점자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활자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으로 녹음한 책이다.

"저희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성우나 아나운서처럼 읽을 수는 없지만, 녹음봉사는 전문가처럼 딱딱한 느낌보다는 듣는 이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 처음 이곳에 발을 내딛게 된 임순남(구네군다)회장의 말이다.

올해로 8년째 녹음봉사중인 이송미(로사리아) 씨는 녹음봉사가 다른 봉사에 비해 결코 녹녹치 않은 일이라 한다.

"녹음실에서 두 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 것은 두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읽다 보면 중간 중간 틀리는 일도 생각보다 자주 생기기 때문에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반복 작업이 많아요. 우리말에는 장음과 단음, 또 꼬이는 발음이 많잖아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경써서 읽어야 해요."

녹음봉사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책읽기와는 전혀 다르다. 희생하는 마음없이는 책을 끝까지 녹음할 수 없다. 이 어려운 일을 15년이란 긴 시간동안 해내고 있는 겨자씨 회원들의 숨은 노력이 새삼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

겨자씨 회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녹음실은 한사람이 들어가면 꽉 찰 만큼 좁다. 이곳에서 매일 2, 3시간씩 혼자서 책을 녹음하는 일은 여럿이 어우러져 하는 봉사와는 다르다.

"저희는 엔지니어가 따로 없어서 녹음장비를 다루는 모든 일을 회원들이 맡고 있어요. 40~50대 주부들이 대부분인 봉사회다 보니 녹음장비 만지는 일부터 쉽지 않아 고생이 많았지요. 저 역시 봉사를 하며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있는 중이구요."

겨자씨는 올해부터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8개 교구에 교회 소식과 동향을 알리는 주보를 읽어 녹음해 보내고 있다. 주보 뿐만 아니라 매일미사 역시 가톨릭 굿뉴스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다운받아 들을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날까지

예전에는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최근에는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아직까지는 녹음도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는 사람만 해택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성동구내 시각장애인 1300여명 및 그 외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까지 녹음 도서를 더 많이 알릴 계획이다.

겨자씨는 목소리를 통해 나누는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책을 녹음할 계획이다. 겨자씨의 숨은 노력이 시각이 불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안, 안구건조증등 녹음도서가 필요한 해외 동포들,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빛과 세계가 되어주길 바란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훗날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앞으로 겨자씨의 활동이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며 이름을 지었다. 겨자씨의 녹음 도서를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원주카리타스에서는 녹음도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저희 후원회 자원봉사자께서 CD에 담아 보내드리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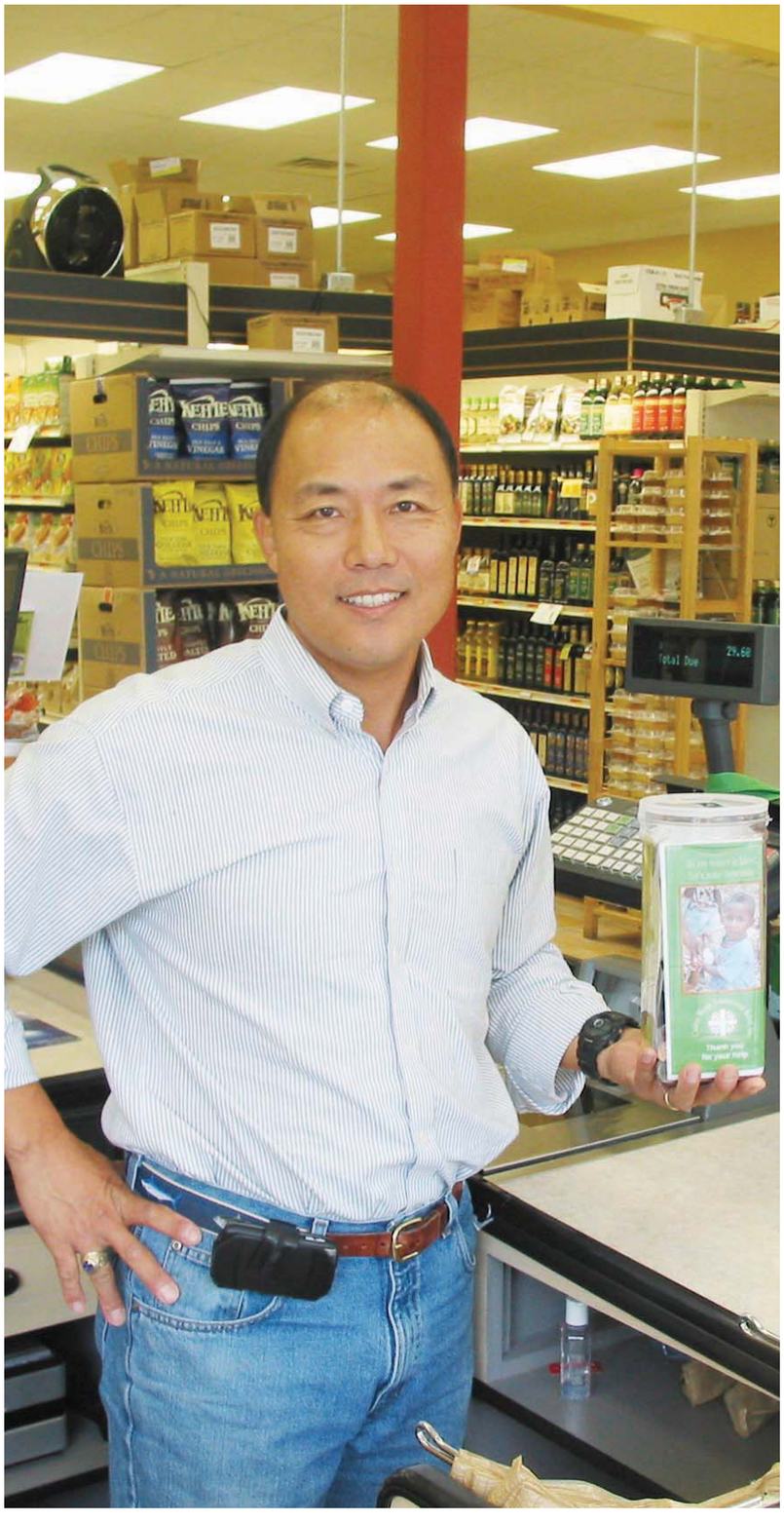
신청문의 및 방법: 자원봉사자 유자경 모니카 : 703-539-9212
이메일 : jakyung.yoo@gmail.com
주소 :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구비서류: -안과의의 난독진단증명서
-1년회비 $20 (성동장애인복지관 녹음도서 홍보실에 도서구입비 후원금으로 보내게 됩니다.)
-녹음도서 신청시 CD 우송료 및 수수료 - 한 도서 당 $3
(CD는 그대로 간직하시면 됩니다)

주 의 점: CD copy는 저작권 문제로 절대 금합니다.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Yes! Organic Market 차명학대표



윤경자

〈원주카리타스 재정/운영이사〉

원주카리타스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후, Dr.차명자 이사님과 같이 모금통 시설과 관리를 부탁 받았다.

이미 참여 해 주시는 업소들과 또 새로 신청이 들어온 업소들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등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나의 남편이 운영하는 건강식품 마켓들에도 모금통을 설치하게 되었다.

Yes, Organic Market은 1989년에 이 마켓을 개척한 주인으로 부터 인수 받은 후 워싱톤 DC의 uptown Cleveland Park, Adams Morgan, Capital Hill, Brookland, 모두 네 동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Yes! Organic Market 두 개가 건설중이기도 하다.

Yes! Organic Market은 자연산과 무공해 식품을 특별히 취급하여 교육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에게 선호를 받고있다.

방부제, 인공재료, 식용색소, 등등 해로운 요소들이 들어있지 않은 상품만 골라 판매하며, 특히 각종 과일과 채소들은 제초제, 곰팡이 제거제, 살충제를 전혀 안쓴 농산품만 취급하고 있다.

모든 식품을 판매하는 동시 전 종류의 비타민과 미용관련 상품도 마련이 되어있다. 이 모든 물건 역시 자연산과 무공해 요소로 제작된 것 들이다.

더욱 더, Yes! Organic Market은 자선사업에도 앞장을 서고 있다. 지역 학교들의 향상을 위한 모금운동에 매년 한 몫을 하고 있으며, 경찰 공로상 시상식 연회 경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건설중인 두개의 Yes! Organic Market 이 완성되는 즉시 모금통을 소비자들의 눈에 잘보이는 장소에 설비할 계획이다. 그럼, 원주카리타스의 왕성한 모금활동을 빌며.

My involvement with Wonju Caritas began in the spring of 2008. I was assigned with the task of placing collection jars at participating businesses. Dr. Cha Myong Ja and I worked together to find store owners who were willing to have the jars displayed at prominent places.

The Yes! Organic Market is one of the stores that participate the collection. The stores are owned and operated by the family of Gary Cha, husband of Dr. Cathy Yun. The Yes! Organic Market is a local chain of 4 stores operating in Washington, DC. The first store was purchased from the founder in 1989 which is located in uptown Cleveland Park. The other locations have opened in Adams Morgan, Capital Hill and Brookland area. Also there are 2 more stores under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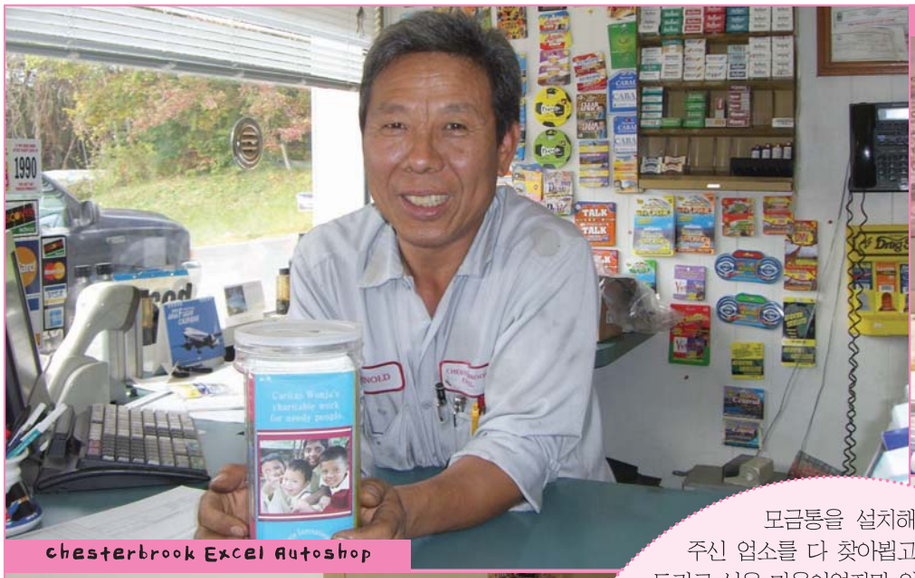
The Yes! Organic Market is a unique grocery store specializing in natural and Organic groceries that many educated consumers patronize. The store screen products that contain artificial ingredients, artificial preservatives, food coloring and many other harmful ingredients. The produce section displays varieties of fruits and vegetables that are free of herbicide, fungi-cides and pesticides. In addition to being a full service grocery store, there are complete selections of vitamins and beauty aids that are also made of natural ingredients free of harmful chemicals.

The Yes Organic Market gives generously to local charity organizations. It gives top priority to educational fund raisers for local schools. Every year, many schools hold fund raising auctions which the Yes Organic Market participates 100% of the time.

There are also Police award banquets to award outstanding police officers that the Yes Organic Market donates generously to help pay for the banquets.

As soon as the new stores open this year, there will also have the collection jars for the Wonju Caritas.

사랑의 모금통 설치 업소를 찾아서



Chesterbrook Excel Autoshop

Monument Cafe

모금통을 설치해 주신 업소를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일단 이번엔 가까운 업소 몇을 사진으로 담아 보았다. 모금통을 비치하게된 동기나 보람에 대한 인터뷰도 포함해 회지에 보고하고 싶었으나 모두들 어색해 하셔서 사양하시는 바람에 사진으로나마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보내고 싶다. 그저 하찮은 잔돈이 아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께 전달된다고, 또 업소주인분들은 직접 자기주머니를 털어 모금통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도, 한 통 한 통의 잔 돈이 우리에게는 거금의 모금자금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더욱더,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도 겸해 드리고 싶다.

차명자 〈원주카리타스 재정/운영이사〉

Fajroaks Cafe

Greensboro Cafe

Corporate Ridge Cafe

Corp Ridge Cafe

Subway-Vienna

나누면 나눌수록

파푸아 뉴기니(Papua New Guinea), 남태평양의 섬나라. 작렬하는 태양, 쪽빛 바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야자수 나무들과 푸른 숲… 개방과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시간이 멈춰 버린 듯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인류학의 보고. 지진, 화산, 해충, 질병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만 그래도 풍요로운 자연과 조상들의 은덕으로 땅을 일구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드릴 줄 아는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한국 천주교회에 던져주고 있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천주교회가 200주년(1984년)을 전후로 비약적인 내적, 외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외방선교회의 창설(1975년)을 통한 한국 천주교회의 쇄신(paradigm shift) 즉, '받는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에로의 대승적 탈바꿈에 대한 성령의 은혜로운 축복 때문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의 파푸아 뉴기니 파견(1981년)은 복음적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국 천주교회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었다.

또한 이 같은 나눔은 대외적으로는 보편교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천주교회의 성숙함과 선교열정을 드러내는 상징적 표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국내적으로는 수도자와 사제를 지망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신학교와 수도원으로 모여들게 하는 촉매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상황에의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해 교회의 예언자적 소명을 다함으로써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이 파푸아 뉴기니 선교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진다는 복음의 진리를 새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천주교회는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교회에로의 도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풍요로워진다 - 파푸아 뉴기니의 선교사들

정도영 신부 〈한국외방선교회〉

파푸아 뉴기니 교회는 18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에서 넘어온 선교사들의 순교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약 700만 인구의 25% 정도의 가톨릭 신자 비율을 보이고 있고 19개에 달하는 가톨릭 교구가 그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현재 2개의 교구(Madang, Mendi)에서 10명의 선교사들이 본당, 학교, 병원, 빈민들을 위한 사목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일이지만,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질적 문화, 언어, 풍습 가운데서 함께 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구현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파푸아 뉴기니에서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치기에는 많은 재정적 제약이 뒤따른다. 본격적 선교활동을 위한 자금은 차치하고라도 선교사제들이 먹고 자는 기본적인 생활부터 국내 선교회 본부에서 보내주는 자금과 은인들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구마, 감자, 바나나 등을 주식으로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들의 삶도 고단하기는 마찬가지, 그들에게 틈나는 대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일깨워 주기도 하지만 그들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요원하다.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온갖 해충들, 풍토병, 그리고 빈약한 의료, 위생시설 등은 원주민들 뿐 아니라 선교사들에게도 커다란 도전이다.

그들의 삶에 함께 하고자 온 선교사들이지만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는 것 또한 도전이다. 그 도전 앞에서 선교사들은 자주 외로움을 호소한다.

그런 선교사들에게 수많은 은인들의 기도와 격려는 큰 힘이 되고 나아가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선교사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파견되는 하느님의 일꾼들이다.

자신들의 뒤에 교회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선교사들은 위로를 받고 행복감을 느낀다.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선포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이다. 선교사들과 그들을 파견하는 공동체, 즉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기에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지지하고, 물적으로 후원하는 일은 교회의 소중한 사명이며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마르 16:15)는 주님의 선교명령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받드는 것이다.

버지니아 원주 카리타스 복지재단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한국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희생으로 쌓아지고 기도로 다져진 소망이 선교사들의 선교적 투신을 통해 먼 나라 이민족에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전달될 때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그만큼 앞당겨지는 것이다.

후원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요리조리

달콤한 돼지갈비

이민정 (M J Cooking)

생활을 하다보면 바비큐 파티 초대도 자주 받고, 또 우리가 초대를 하기도 한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바비큐 문화로 고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함께 어울려 나누는 정이라는, 또 다른 이웃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이번 요리조리 코너에서는 바비큐 파티 때 먹어도 되지만 간단하게 집의 오븐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돼지 갈비를 준비해 봤다.

돼지갈비 만드는 법

먼저 찬물에 신선한 돼지갈비를 담가서 핏물을 뺀 뒤, 양념이 골고루 배게 칼집을 군데군데 내고, 준비된 양념에 재워서 냉장고에서 1, 2일 보관한다. 그럼 그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를 알아보자.

먼저 짭짜름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나게 설탕, 간장, 케첩 그리고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양파와 함께 믹서에 갈아서 양념을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된 돼지갈비는 오븐에 앞뒤로 소스를 발라가며 구워봤다가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나, 퇴근 하고 온 아빠에게 시원한 맥주와 함께 주면 우리 집 식구 모두에게 "엄마는 짱!" 이라는 말을 듣는다.

밥상의 해결사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쇠고기에 비해서는 단백질의 함유량은 적지만 다른 육류에 비해 비타민 B1의 함유량이 아주 높다. 또한 육질이 연하고 쇠고기 보다 감칠맛이 있으며 살코기 부분은 질적으로 봤을 때 콩보다도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싱싱한 돼지고기 고르는 법

1. 고기의 빛깔이 고운 분홍이어야 한다. 돼지고기의 색깔이 갈색이나 검은색을 띤다면 이미 변질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2. 지방의 빛깔은 흴수록 좋다.
3. 냄새를 맡아 봤을 때, 신선한 고기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돼지 누린내 없애는 법

1. 불고기용 양념으로 고기를 재울 때 양념에 생강즙, 청주, 포도주를 넣는다.
2. 구울 때는 양파와 마늘, 파 등의 향이 강한 야채와 함께 굽는다.
3. 돈가스를 만들 땐 고기를 우유에 재운 다음 조리한다.
4. 삶아 먹을 땐 커피나 된장을 한 스푼 정도 함께 넣고 삶는다.

돼지 고기를 맛있게 조리하려면

1. 언 고기를 해동할 때 뜨거운 열에서 급하게 해동시키면 겉은 익게 되고 속의 고기즙이 줄줄 흘러나오게 된다. 냉장고나 물에서 천천히 해동한다.
2. 돼지고기를 연하게 만들고 싶을 땐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과일과 함께 재워 놓는다.
3. 각종 향신료, 야채, 된장 등을 이용한다. 냄새도 빠지고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살아난다.

보관법

1. 1주일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돼지고기는 쇠고기에 비해 빨리 상한다. 냉동실에 보관하더라도 1~2주 안에 먹어야 한다. 냉장고에서는 2~3일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2. 어떻게 썰었느냐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진다. 덩어리고기가 가장 오래가고 얇게 썰수록 빨리 상한다. 그래서 다진 고기는 구입한 날 바로 먹는 게 좋다. 만약 갈아놓은 고기가 남았다면 돈가스용으로 만들어 1인분씩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도 요령이다.

1. 찬물에 신선한 돼지갈비를 담가 핏불을 뺀 뒤, 양념이 골고르 배게 칼집을 군데군데 낸다.
2. 설탕, 간장, 케첩, 양파를 믹서에 갈아 양념을 준비하고, 준비한 갈비를 양념에 재워서 냉장고에서 1,2일 보관한다.

3. 갈비에 양념을 앞뒤로 발라가며 오븐에 넣어 굽는다.

4. 먹기 직전에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갈비를 결대로 썬다.

5. 썰어 놓은 갈비에 꿀을 발라 오븐에 넣어 따끈하게 보관한다.

6. 손님이 오시는 대로 오븐에서 갓 꺼낸 먹음직스러운 따끈한 갈비를 서브한다.

ROAD to RELAXATION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

이소영 〈원주카리타스 편집인/전 내셔날 지오그래픽 한국판 편집장〉

Ralph Waldo Emerson은 "Nothing can bring you peace but yourself." 라는말을 남겼다. "마음의 평화는 자신에게 달렸다"는 말이다. 요즘 미국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단으로 명상(meditation)이 각광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던 참에 마침 "Live More Wisely and Compassionately(좀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라)"라는 주제로 Mindfulness Meditation Workshop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저없이 참여했다. 강사는 30년 넘게 명상 수련을 해왔고 현재 대학에서 명상 수련을 가리키는 베트남인. 명상은 원래 불교(Zen tradition)에서 유래했지만 여기서는 종교와 관계없이 감정을 다스리는 테크닉(calming skills)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 되었다.

워크샵 참석자들의 수준은 수년 간 명상을 해온 베테랑에서부터 나같은 초보까지 다양했고, 직업도 teacher, office worker, therapist, masseur, counter-terrorism worker, full-time mother, pregnant woman, retiree 등 다양했지만, 참여 목적만은 한결같이 stress reduction(스트레스 완화)였다.

각자의 소개가 끝난 후 앉아서 하는 명상(sitting meditation)이 시작되었다. 선생이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면 된다고 하자 아주 자연스럽게 책상다리(cross-legged)를 하는 사람, 방석(sitting cushion)을 여러 개 놓고 그 위에 앉는 사람, 다리를 뻗는 사람, backjack(마루바닥에 놓는 등받이 의자)에 기대는 사람, 그냥 의자에 앉는 사람, 급기야는 눕는 사람까지 있었다. 선생은 앉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mindfulness(깨어 있는 마음의 상태)라며 누워서도 잠들지 않을 자신만 있으면 괜찮단다.

은은한 벨 소리와 함께 명상이 시작되자 다들 스님 수준으로 진지하게 임한다. 숨을 깊이 내쉬고 들이쉬며 호흡에 대해 mindful하는 이 수련의 목적은 '참으로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능력'을 키우는 것. 현재의 순간 순간이 쌓여서 미래가 형성되니 바로 이 순간에 전념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삶의 질과 직결될 수밖에….

선생은 간간히 "Be aware of your breath(호흡에 열중하십시오)" "Use your breath to re-focus(호흡으로 마음을 다시 집중시키십시오)" 또는 "Be in the present(현재에 머무십시오)" 라고 말하며 흩어지려는 우리 마음을 모아주었다. 그리고 명상 중에 잡념이 든다 해도 걱정하지 말라며, 단 그 속으로 빠져들지만 말고 그에 대해 mindful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다음은 걷기 명상(walking meditation) 시간. 각자 갈 길(path)을 정해 자신의 발걸음(footstep)에 주시하며 심호흡을 병행해 천천히 걷는 수련법이다. 오전에는 실내에서, 오후에는 숲속을 걸으며 걷기 명상 시간을 가졌는데, 마음을 모으며 걸으니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가뿐해진다.

스케줄에는 점심식사 때 mindful eating (말하지 않고 먹는 것에만 열중하는수련)을 연습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모여 앉아 vegetarian dishes(야채 음식)를 나눠 먹으며 잡담. 대개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지 열변을 토했는데 내가 한국에 비하면 미국의 lifestyle은 상당히 여유로운(relaxing) 편이라니까 다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더니 한 여자가 "It's good to know"라고 코멘트. 미국보다 더 바쁜(hectic) 곳도 있다는 것 알게 돼서 기쁘다는 뜻이다. 그러자 한 남자가 일본인 동료에게서 그런 얘기 들었다며 내 말을 지지(?)해줬다.

명상에 대한 강의도 있었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명상을 한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단 happiness나 sadness에 대해 mindful함으로써 그 실체를 명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greed(욕심), anger(화), ignorance(무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영향 하에서는 사태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명상은 이런 약점(flaw)를 보완해주는 도구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자연히 스트레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질 무렵 워크샵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서로 이메일 주소를 교환하고 다음 명상수련을 다짐하며 아쉬움을 달랬다.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이들의 진지한 태도가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이제 나도 기초적인 명상 수련 방법은 배웠으니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

잠깐 한마디

A: I'm so stressed out at work.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B: Why don't you try meditation? It helps you slow down and clear your mind.
명상을 한번 해보지 그래요? 명상은 속도를 늦춰주고 마음을 맑게 해주거든요.
A: That's the ticket. 바로 그거예요.

이디엄 숙자병법

FOOD

이소영 〈원주카리타스 편집인/전 내셔날지오그래픽 한국판 편집장〉

이번 달에는 가장 전통적이면서 보편적인 미국인들의 음식이라 할 수 있는 meat & potatoes, gravy, bread & butter, bacon 등을 중심으로 한 숙어들을 소개한다.

meat & potatoes

미국인들에게 고기와 감자는 한국인들의 김치와 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asic(기본적인)'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A good education is the meat and potatoes of a good career."라고 하면 "좋은 교육은 좋은 경력의 기본"이라는 뜻이 된다.

A: Let's find a house with a porch, a fireplace, and maybe a nice garden.
베란다와 벽난로 있는 집을 찾아보죠. 근사한 정원까지 있으면 더 좋고.

B: Whoa! You're getting ahead of yourself. We should concentrate on the meat and potatoes—three bedrooms and two bathrooms. 잠깐! 당신 진도가 너무 빨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 세 개에 화장실 두 개니 거기에 집중하자구.

rest is gravy

'나머지는 보너스'라는 뜻이다. gravy는 고기를 요리할 때 나오는 육즙에 양념을 해서 만든 소스로 보통 스테이크와 같은 육류요리에 곁들여 나온다. 원하는 사람만 얹어 먹기 때문에 "something extra"라는 의미로 쓰인다.

A: Congratulations. You graduated at the top of class, you have a hunky boyfriend. You have everything! 축하해. 1등으로 졸업한 데다 멋진 남자친구까지 있고. 넌 부러울 게 없겠다!

B: To be honest, all I care about right now is getting a satisfying job. The rest is gravy.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건 만족스러운 직장을 얻는 거야. 나머진 보너스인 셈이지.

gravy train

'노력 없이 쉽게 이득을 챙기는 유리한 입장, 지위, 또는 일'이라는 뜻이다. "something extra"라는 의미의 gravy를 이용한 표현으로 "ride the gravy train"이나 "on the gravy train" 등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유산을 상속받아 평생 일 안하고도 잘 살 수 있다면 "He's on a permanent gravy trai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A: Weird, John doesn't seem anxious about finding a job after graduation.
이상하게도 존은 졸업하고도 취업할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

B: He doesn't need to. His family owns a big company. He's riding the gravy train of his father's money.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큰 회사를 갖고 있어서 아버지 재산 덕을 보며 살면 되거든.

bread and butter

"meat and potatoes"가 "basic"이라는 의미라면, "bread and butter"는 "central, essential"이라는 뉘앙스를 갖는다. 예를 들어 "The voters are worried about bread and butter issues like jobs and taxes"라고 하면 "유권자들이 직장이나 세금과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해 걱정을 한다"는 뜻이 된다.

A: Do you think Democrats lost because they stand on abortion and gay marriage?
민주당이 낙태와 동성연애자 결혼을 지지해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나요?

B: No, they lost on bread and butter issues on security and economy.
아니오, 국가안보와 경제 등의 주요 이슈에서 진 거죠.

bring home the bacon

bacon은 sandwich, omelette, salad, pasta 등에 자주 첨가되는 ingredient로 미국인에게는 감초와 같은 재료이다. 그래서인지 이 표현은 "bring home a paycheck(생활비를 벌어온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I'm working so hard to bring home the bacon for my family"라고 하면 "가족을 먹여살리느라 뼈 빠지게 일한다"는 뜻이 된다.

A: With the baby due soon, I want to quit my job and stay home.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테니 직장 그만두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B: Sounds good in theory, but my job isn't that stable. If something happens, who's going to bring home the bacon? 이론적으로야 그럴 듯하지만 내 직장이 안정적이 아니잖아. 만약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생활비는 누가 댈 거냐고?

save one's bacon

원래는 "escape injury to one's body(몸을 다치지 않다)"는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은 "escape from difficult situation or trouble(위험한 상황이나 고비를 넘기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A: I got caught speeding, but in court the judge didn't take my license away.
속력을 내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운전면허증은 박탈하지 않더라구요.

B: You're lucky. Your lawyer saved your bacon. 운이 좋았네요. 당신 변호사 덕분에 고비를 잘 넘긴 거예요.

살레시오의 기적

장성환, 이경희 〈지적장애인시설-살레시오의집 생활재활교사〉

우리 은총이네 반은 이창원, 이종택, 고병국, 김덕호, 나성주, 김덕성 가족 여섯 명과 담임 두 명 총 여덟 명이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 중에서 이창원 아저씨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아저씨는 건강한 몸으로 고향으로 귀향 하셨다가 불편한 몸으로 시설로 귀원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시설로 복귀하기를 요청했지만 고향에서 방치된 채로 생활을 하여 다리가 굳어져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마다 돌아다니며 진료를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평생 다리를 못 쓰고 고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움직임을 기어 다니면서 해결하였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도 심각하였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였습니다. 하고 싶다는 의지도 없었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담임은 방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물리치료사와 담임이 회의를 하여 하체단련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 일심동체로 창원 아저씨를 지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설에 귀원한 다음 날부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쓰지 않은 다리라서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안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주님이 곁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열심히 하체단련운동에 매달렸습니다.

1단계로 오전, 오후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천 번씩 시도하면서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무엇을 하자고 하면 '안 해요, 싫어요, 못 해요, 몰라요.' 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였더니 다리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단계는 1단계를 병행하면서 치료용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하여 점심식사 전 까지 운동을 하였습니다. 점심식사 후 30분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에는 1시부터 4시 까지 자전거 타기를 한 다음 30분 동안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조금은 엉거주춤한 자세였지만 차츰 물건을 집고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단계는 1,2단계를 병행하면서 워커(보행기)로 걷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워커 없이 클러치(목발)만 사용하면서 걷기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교사들이 쏟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음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4단계는 2,3단계를 병행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걷기운동을 하였습니다. 40도 경사진 산책로 50미터를 워커로 두 세 차례 왕복으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서적 안정 역시 중요함으로 짬을 내어 상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치매가 시작되었는지 잠시 전에 있었던 일도 잃어버리기가 일쑤랍니다.

이렇게 네 달을 끝임 없이 지도하였더니 혼자서 일어나 지팡이를 의지하며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학계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고 단정 지어 놓은 것을 가족과 교사들이 힘을 모아 결국은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체력이 약하면 운동하는데 힘들다고 보양식으로 도가니탕을 여러번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은 더운 날에 마당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아저씨에게 파이팅을 외치기도 하고 시원한 물을 떠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 온 가족과 교사들이 함께 노력한 끝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육체적인 지도에 중점을 두었지만 하반기에는 정신적인 안정에 비중을 두어 병행하려고 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 속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창원이 아저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이 아저씨 파이팅! 은총이네 가족 파이팅!

살레시오의 집 원생들을 돕기위한 살림터 재배 크리스마스 선물용 유기농 허브차를 판매합니다. $15 (송료포함) 구입하실 분은 아래 주소로 수표와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Caritas Wonju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의 지급인 란에는 Caritas Wonju로 써 주십시요

견진성사를 받고 …

박 라우렌시오 〈원주교도소 가나공소〉

찬미예수님 !
새 외투를 입고 새 신발까지 신었습니다.
39년 짧지만도 그렇다고 길지도 않은 시간을 살면서 저는 사치스러운 옷과 신발로 부끄럽고 상처투성이인 몸을 숨기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마음이 나약하고 믿음 없이 이 소리에 넘어지고 저 소리에 상처를 주며 불신을 키워가는 삶을 살아가던 제게 주님은 웃음과 기쁨의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런 일도 없는데 죄의 얼룩으로 가득한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당신 손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주 나의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언제나 원망의 탄성을 내뱉던 저를 당신께선 아무 말씀 없이 기다려 주셨죠. 고작해야 당신이 시키신 대로 기도밖에 드린 게 없는데 그것도 짧은 기도가 전부였는데 당신께서는 귀하게 받아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새 옷 선물에 만족하지 않으신 당신께서는 가시에 찔리고 유리에 베인 저의 발을 보시곤 2008년 6월 17일 세상의 어느 가시나 칼에도 베이지 않는 견진성사를 통해 주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라고 새 신발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저에게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육신을 주신 것도 부족해서 당신의 피로 숨까지 주신 주 나의 하느님 - 주 하느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당신께서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주 나의 하느님을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제 안에 당신을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늘 깨어있는 삶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모 (주교님께 불러드리는 감사 노래)

장해영 〈원주후원회실장〉

철커덕 !! 철문을 잠그는 둔탁한 소리가 괜스레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곳이다.
교도관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지나고 다시 마당을 거쳐 들어간 곳이 집회를 여는 강당이었다. 오늘은 11명의 형제들이 주교님의 주례로 견진성사를 받는 날이다. 100여명의 형제들이 푸른 제복을 입고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신자가 아닌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았는데, 종교집회는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참석을 한 듯 보였다.
훤칠한 키에 잘 생긴 청년들이 미사 전례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곳에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남사에서의 미사는 모든 준비를 형제들이 한다고 했다. 수녀님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미사 도구를 만지며 준비하는 것 같았다. 주교님을 영접하고 미사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밴드와 함께 멋진 성가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건반을 치면서 성가를 주도하는 형제의 노래가 어찌나 맑고 깨끗하던지, 가슴이 뭉클하면서 마음속 기도가 절로 나왔다.
짧은 머리에, 가슴엔 수인번호를 달고 호소력 짙은 음성으로 성가를 부르는 청년의 모습이 너무도 경건하고 멋있어 보였다. 오래되고 낡은 건반으로 나오지 않는 음이 더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우리들에게 천상의 멜로디처럼 마음을 적셔주었다. 철장 속에서 울려오는 성가였기에 더욱 특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주교님께서는 견진성사를 집전해 주시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해 주셨다.
미사가 모두 끝나고 견진자들은 주교님께 감사노래를 불러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 왔는지?…
어디서 들은 듯한 멜로디가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다. 김수희의 '애모' 였는데 가사가 전혀 달랐다. 푸른 수의를 입은 젊은 청년들이 빨간 장미 꽃송이를 흔들며 주교님을 향해 '애모' 를 선사하고 있었다.

'은총 가득한 복된 이 날에..
주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루하루 되새기면서
희망 중에 기쁨 중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충실한 종 되겠습니다
주교님 사랑합니다. (장미꽃 흔든다)'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났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 이토록 천진스럽고 순진하기만 한 청년들이 한 순간의 격분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빚어진 죄의 결과일 것이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실감하면서 주교님께 드리는 '애모' 의 원 가사를 되새겨 본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오늘 같은 날 그분 앞에 서면 우린 정말 한없이 작아짐을 느낀다.
가나공소(원주교도소 공소) 청년회장은 제대로 된 건반 하나만 있어도 더 아름다운 전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해 신부님과 함께 은인들을 찾고, 드디어 가나공소에 청년회장 앞으로 멋진 건반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11명의 형제들은 신앙의 증거자가 되어 선한 삶으로 이웃에게 많은 감화를 줄 것이다. 가슴에 달려있는 수인번호가 부끄러운 숫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숫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는 마음이다.

세상이 두려운 소녀

유 헬레나 〈루치아 쉼터 원장〉

이제 16살인 임이 또래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임이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이미 졸업생입니다. 울 집의 영재(?)라고 할 수 있답니다.

헌데 임이의 사회성은 아직 아기 걸음마입니다. 누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이나, 본인이 물어보는 것이 부담스러워 누군가 말을 건네면 머리를 흔들며 한동안 생각을 하면서 힘겨워 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물음에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몇 번을 거듭 물어 보면 겨우 '네~에~' 하고 힘겹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면한 힘든 상황이 있으면 무기력해져서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쉼터 규칙상 용납이 안 되어 모두 달려들어 깨워도 죽은 듯이 웅크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40여일, 이제 임이가 한두 마디씩 대답을 하고 단어의 뜻을 다시 확인하면서 어색한 몸짓으로 조금씩 관계를 맺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아는 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행방불명되고 생후 1년도 안되어 친부마저 돌아가시어 아이가 없는 먼 친척집에 입양되어 시골에서 양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양부모는 임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억지로 가르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년경 같은 반 친구의 놀림에 시달리며 친부모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지만 친구의 놀림에도 대처할 방법을 모르고 자란 임이는 지난 해 동네 노인과 건달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면서 마음을 닫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를 전혀 모르는 부모는 임이가 환각증세를 보이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치료과정에서 폭행사건을 알게 되어 가해자들을 모두 고소하였습니다.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가해자들이 여럿이라 가해자 식구들의 위협과 동네사람들의 눈총에 이제 임이는 양부모와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양아버지도 크게 상심하여 건강이 나빠져 일을 전처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쉼터의 또래들과도 선뜻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다 아이들이 다가가며 하는 이야기를 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임이의 생활입니다.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장애아동시설에 매일 몇 시간씩 봉사하기로 하였는데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매달리자 어찌 할 줄 몰라 힘겨워 하기에 주 1회만 하기로 하고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임이에게 자립심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이렇게 하나씩 걸음마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하기 위해 아이의 두려움에 섞인 많은 한숨과 지켜보는 이들의 인내심이 있어야 하겠지만 서로 여유를 갖고 노력하면 머지않아 당당한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성장과정에서 받은 많은 상처로 인해 자기표현과 대인관계가 두려워 누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 아기소녀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웅크려 있지만 말고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밥상 제천 노인종합복지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저희기관에서 밑반찬 서비스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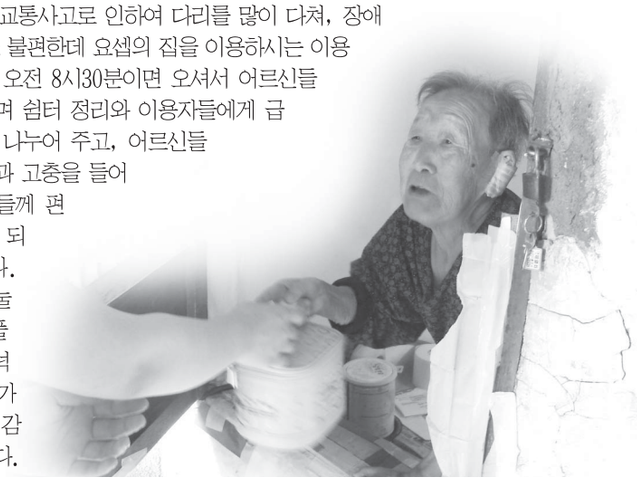
6월부터 저소득 및 거동 불편 제천 지역주민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서비스를 실시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른 시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무더운 여름날 이마에 땀을 송글 송글 맺혀가며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반찬 서비스는 음식조리봉사자, 배달봉사자 두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수혜 대상자는 독거노인 및 장애가정 입니다. 그중에 한분이신 장월계(79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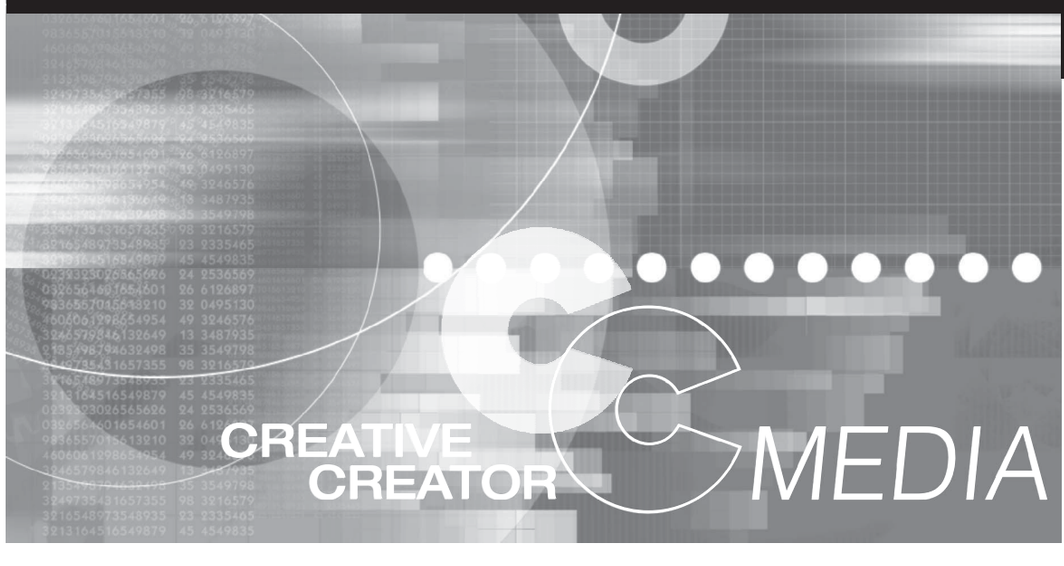
처음 도시락 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저희 복지관을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었다며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점심식사를 하러, 아침 9시에 집에서 나오셨다는데 11시30분 정도에 도착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중풍으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여 유모차에 몸을 의지하여 오셨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매주 2회씩 도시락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30분경 봉사자가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 점심식사도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체구에 가냘픈 몸이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맞이하시며 수고한다고 , 고맙다고 없는 살림이지만 할머니가 드시지 않고 아껴 두었던 음료수를 꺼내 두 손에 꼭 쥐어 주십니다. 서비스를 실시한지 3개월이 되었는데 어르신 몸도 많이 건강해 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여유로워 지셨음을 느낍니다.

저희 기관에는 밑반찬 서비스 봉사자 외에 제천지역 성당 (레지오 단원)에서 매일 순번으로 요셉의 집 (경로식당)에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봉사자가 계신데 5년째 매일 한결 같이 요셉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든든한 파수꾼 여춘구 (토마스 아퀴나스)형제님이 계십니다.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많이 다쳐, 장애가 있어 몸도 불편한데 요셉의 집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을 위해 오전 8시30분이면 오셔서 어르신들을 맞이하시며 쉼터 정리와 이용자들에게 급식 번호표를 나누어 주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들어주며 어르신들께 편안한 동무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쇄 문화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 - C&C MEDIA

한차원 앞선 인쇄문화를 선도해 가는 씨앤씨 인쇄소!
광고 기획, 종합디자인에서 인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인 최대의 인쇄 회사입니다.

CREATIVE CREATOR MEDIA

CREATIVE CREATOR MEDIA, LLC.
9425-C Mathy Drive, Fairfax, VA 22031
Phone 703.425.7800 / 703.425.7200
Fax 703.425.2800
E-mail : cncmedia@gmail.com

2008년 1월 ~ 2008년 9월 30일까지 후원회비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업소/단체/기관	
강금생	1월~8월
강명자	1월~3월
강명희 (에밀리아)	1년분
강승평	1월
강승희 (카타리나)	1월~6월
강윤선 (루시아)	1월~6월
고경애 / 고석태	1년분
곽종무	1년분
광숙조	1년분
구귀옥 (아나타시아)	1월~8월
구춘희	1월~12월
권순 (리오바)	2월~10월
권티파니	특별후원
금화열 / 로사	1월~12월
김강욱	1년분
김경진	1년분
김경호	1월~9월
김관동 / 강미	1월~10월
김관동/관동한의원	1월~10월
김남 H	1월~12월
김남례 (모니카)	1월~9월
김남식 (안드레아)	1년분
김남식 / 율리아나	1년분
김동한	1년분
김두하 / 연희	1년분, 특별후원
김명자 (수산나)	4월~9월
김명희 (율리아나)	1년분
김문철 / 카타리나	1월~12월
김박철 (안젤라)	1월~10월
김보경/김경숙	1년분
김성헌	1월~10월
김성화	1월~9월
김수연	1월~7월
김승현 / 현동	1월~9월
김영 N	1월~8월
김영식	1월
김영식 / 김소영	1년
김영애	1년
김용환	특별후원
김우경	1월~10월
김원정	1월~10월
김윤상	1년분
김인순	1년분
김재인 (안나)	1년분
김정욱 / 숙희	1년분
김정자 Spencer	1년분
김정희 (안젤라)	1년분
김정희 / 준수	1년분
김종덕 / 아네스	1월~10월
김종빈	1월~9월
김진석 / 소피아	1년
김진희 크리스티나	1월~2월
김찬문	1월~12월
김창겸	1월~7월
김춘실	2월~8월
김호찬	1월~10월
김홍자 (아네스)	1월~9월
김화동	1년분
류의희	1년분
민들레회	1월~9월
민일성 / 멜라니아	1월~12월
박규호 / 루시아	1월~9월
박민규	1월~9월
박봉임	1년분
박영수 Tri State Contractors	1월~12월
박원균 골롬바	1월~3월
박종J	1월~9월
박종순	1월~10월
박찬호	1월~8월
발렌티노회	7월~8월
백경률- 익명	특별후원
서영숙	1년분
서정길	7월~9월
소근화 (도미나)	1년분
소병각	1년분
손양조	1월~9월
송상훈 / 마리아	1월~10월
신문자	특별후원
신순자	1월
심외숙	1월~12월
안나회	1월~9월
안순상	1년분
안윤민	특별후원
안진순	특별후원
양치모 / 수산나	특별후원
안치홍 안토니오	1년분
안혁빈 / 데레사	1월~12월
양방우 / 정자	1년분
양헬렌 / 김현자	1년분
어도로테아	1년분
어진경	1년분
오성웅	1월~9월
오진환 (로마노)	1년분
우기업 / 데레사	1년분
원승철	1월~12월
유정식	1년분
윤경님	특별후원
은임순	1년분
이갑현	1월~9월
이강영 (데오도로)	1월~12월
이광호 / 경옥 / 미라	1월~4월
이데레사M	1월~4월
이만수	1월~9월
이선옥	1월~6월
이세혁 / 세실리아	1년분
이수연	10월
이순남	1월~8월
이순용 (안젤라)	1월~10월
이승구 / 분다	1월~12월
이신규	1년분
이알비나	1월~8월
이용운	1월~9월
이우진 / 김숙희 / 이명	1월~9월
이유정 / 이혁주	1월~12월
이은배	1월~8월
이정일	1년분
이주완 (스테파노)	3월~9월
이천우 / 헬레나	1년분
이태S	특별후원
이태영	1월~9월
이태욱 / 리타	1월~8월
임계빈 / 데레사	1월~12월
임승재 / 요안나	1년분
임채정 안젤라	6월~9월
장리차드	1월~6월
장현민 / 윤성	1년분
전태진 / 전기복	1월~12월
정창조 / 루시아	1월~8월
제인위싱턴동창회	1년분
조민주 / 조옥희	1월~9월
조봉순 (아가다)	1년분
조영인 / 모니카	1년분
조정근	1년분
주삼성 / 레지나	1년분
차도미나	특별후원
최마리아	1월~12월
최문희 (카타리나)	1월~10월
최순주	1월~6월
최순희	1월~10월
최재근 / 가브리엘	1월~8월
최재근 / 광송혜	1월~8월
최재근 / 광지호	1월~8월
최재근 / 글라라	1월~8월
최재근 / 써리나	1월~8월
최재근 / 최진영	1월~8월
최재근 / 최진호	1월~8월
이데레사	1월~10월
최윤옥	1월~11월
이명구 / 수산나	1월~8월
이윤아 젬마	1월~8월
송승혜	1월~8월
오승은	1월~8월
박찬영	1월~8월
이숙자 / 루시아	특별후원
이영희	1월~10월
권영수 / 권점숙	1년분
한기열 / 분도	1월~5월
한마리아	1년분
한중희 / 영희	1년분
허영숙	1월~12월
홍권우	1월~4월
홍성철 / 세실리아	1~12월,특별후원
홍알벗	1월~9월
홍진원 / 김은숙	6월~10월
황원균 / 황영문	1년분
황정자 (데레사)	1년분
Garvey, Cheryl K	1월~10월
Park's Vending Service	1월~6월
Reed, Julianna	1월~7월
Tan, Andrew / Anna	1월~10월
아동결연 / 시설후원	
대건의 집	
고봉수	1월~10월
박영희 데레사	1월~10월
지수성	1년분
대철 베드로의 집	
고경자	1월~10월
지수성	1년분
분도의 집	
안순상	1년분
지수성	1년분
루치아 쉼터	
이데레사	1월~10월
최윤옥	1월~11월
이명구 / 수산나	1월~8월
이윤아 젬마	1월~8월
송승혜	1월~8월
오승은	1월~8월
박찬영	1월~8월
이숙자 / 루시아	특별후원
이영희	1월~10월
권영수 / 권점숙	1년분
예샘의 집	
지수성	1년분
삼척 종합사회복지관	
구자화	1월~10월
김명숙	1월~9월
김순지	7월~12월
김진아	1년분
박미송	1월~10월
박상건	1월~6월
백승연	1월~4월
성승옥	6월~9월
성찬용	6월~9월
소재웅 / 소난희	1월~9월
송정희	1월~5월
안세실리아 / 크리스토퍼	1월~9월
이명자	1월~10월
이소영	2월~1월(09)
이연철 / 박희임	1월~9월
편성대	1월~9월
한귀병 (토마스)	1월~10월
익명 H	1월~9월
살레시오의 집	
소재웅 / 소난희	1월~9월
안나의 집	
지수성	1년분
원주 비안네성소	
구귀옥	1월~8월
금화열	1월~12월
안순상	1년분
김남례 모니카	1월~9월
강명희	1년분
조봉순 아가다	1년분
김두하	1년분
김정희 안젤라	1년분
이희자 엘리사벳	1년분
김복금 헬레나	1년분
원주 카톨릭 종합사회복지관	
강명희 (에밀리아)	1월~10월
고경자	1월~10월
김글라시아 (3명)	1월~12월
김용상	4월~10월
김지은	1월~10월
매죽회 (2명)	1월~10월
박선숙 골롬바 (4명)	1월
박영수	1월~12월
서윤배 / 데레사	1월~12월
이도훈	1년분
이봉기	1년분
장현민 / 윤성	1년분
정우석	1월~5월
차명자	1월~10월
최쥬리	1월~7월
한중희 / 영희	1년분
황덕수	1월~10월
황원균 / 황영문	1년분
황치권 / 황숙희	1월~8월
Langbauer, Catherine	1년분
Pharr, Latashi	1월~9월
정선 프란치스코의 집	
안순상	1년분
지수성	1년분
Reed, Juliana	1월~7월
제천 노인복지관	
소재웅 / 소난희	1월~9월
익명 C	1월~10월
지수성	1년분
천사들의 집	
안순상	1년분
청소년의 집	
고봉수	1월~10월
지수성	1년분
횡성 종합사회복지관	
고재오	1월~12월
고현주 (2명 아동후원)	1월~12월
김계실	6월
김미정	3월~12월
김영식 / 김소영	3월~11월
박선숙 골롬바	1월
노명아	1월~10월
익명 P	1년분
안 알렉스	1월~9월
이 스텔라	1월~3월
이명자	6월~7월
이용선 (3명 아동후원)	1월~12월
정규임	1월~9월
최일지	1월~7월
흑빛공부방	
고경애	1년분
김순섭	1월~9월
늘푸른여성골프회	1년분
박완다	1년분
차창옥	1월~10월
최평란	1년분
이진희	1월~10월
네팔	
김남 H	1년분
김명숙	1년분
김안젤라	1년분
변애린	1년분
송정희 (2명 아동후원)	1월~5월
안알렉스/안크리스토퍼	1년분
안순상	1년분
이은배	1년분
정규임	1년분
지수성	1년분
허영숙	1년분
Langbauer, Catherine	1년분
아프리카	
안순상	1년분
이혁주 (이유정 레지나)	1년분
인도네시아	
김만복	특별
성모회	특별
안순상	특별
이종성	특별
파푸아 뉴기니	
김세실리아팀	1년분
변레지나 (12월~11월(09)	1년분
안순상	1년분
지수성	1년분
에콰도르	
안순상	1년분
백승태 / 마리아	1년분
성심원	
김명철	1년분
김세실리아 팀	1년분
김연희	1년분
박용순	1년분
양치모	1년분
유동식	1년분
이봉기	1년분
최모니카	1년분
한연순	1년분
사랑의 선교회	
김명철	1년분
김세실리아 팀	1년분
김연희	1년분
박용순	1년분
양치모	1년분
유동식	1년분
이봉기	1년분
최모니카	1년분
한연순	1년분
한영옥	1년분
베론성지	
박봉임	1년분
재정기금	
강민식	1월~4월
김글라시아	1월~7월
김리나	1년분
김명철	1월~10월
성 정바오로 천주교회	1월~6월
윤경자	1년분
차명자	1월~10월
홍세실리아	1월~12월
Hi-Tech Bankcard	8월
홈페이지 스폰서	
차명자	1년분
후원회지 광고후원	
강원근 Perio Implants	1년분
레이철 김 (레이철부동산)	1년분
윤경자 치과	1년분
정경한의원	1년분
차명자 치과	1년분
최미숙	1년분
케빈 김 Washington Graphic	1년분
Charlie Hong DMD	1년분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1년분
Peter L. Piseitelli	1년분

사랑의 모금통

Best Seller 김경춘 3·6월 / Goody Corner 김명숙 4월 / City Cleaners 김안젤라 5월 / Chesterbrook Excel 김영술 3·8월 / Beulah Cleaners 김영희 아가도 4월 / J & C Interiors 김재설 김준 3월 / Willow Wood Cafe 김정욱 4월 / Fair Oaks Cafe Jimmy Kim 3·8월 / Pickett Road Cleaners 김창겸 3월 / Arboretum Cafe 김춘실 8월 / Deli Market 박두진 3월 / Cafe at Independence 박루시아 4월 / Liberty Cafe 박루시아 8월 / Jaques Renee 박안나 3월 / Express Seven Food 박정복 1·4·7월 / BP Short Food 박진욱 2·5·6·8·10월 / Le Mirage Hair Salon 박캐터린 4월 / Capitol Cafe ames Suh 6월 / 세라미용실 3·5·6·7·8·9월 / Hunts Woods Cleaners 양치모 9월 / Manchester Bagel 오성웅 7월 / Maynine Inc 용복순 4·5·7·8·10월 / 용인미용실 3월 / Sunrise Cafe 우희경 4·9월 / Brafferton Cleaners 이갑용 4월 / Subway 이민식 3·5월 / Green Cleaners 이수호 5월 / Diplomat Cleaners 이승구 4월 / Greensboro Corp Cafe 이호 3·8월 / Wow Deli 임대식 1월 / 정귀순 3·4·6월 / Press Valet Cleaners 정황섭 3월 / Frank & Stein 조남식 1월 / 지병관 2월 / Yes Gary Cha 10월 / Jon's Cafe 최용태 7월 / Monument Cafe 최지돈 3·8월 / NADA Cafe Sandy Choi 3·7·8월 / Paddock Cleaners 한귀병 4·월 / Lighthouse Wine & Spirits 5월 / Maritime Cafe 5·8월 / Ballston Cafe 4·10월 / Courthouse Cafe 10월 / 알라딘 서점 4월 / 성물부 5월 / 윤현희 5월

* 후원금 내역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되신 분, 주소가 변경된 회원님들은 후원회에 새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571)432-9868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8년 6월 1일 ~ 2008년 9월 30일)

홍진원/김은숙(일반), 김계실(횡성복지관 아동결연), 성찬용(삼척복지관 아동결연), 성승옥(삼척복지관 아동결연), 이명자/Fei Seto(횡성복지관 아동결연), 김순지(삼척복지관 아동결연), Hi-Tech Bankcard Service, Inc.(재정), Gi Nyeong Yi(일반)

축하드립니다

축하 하나

카리타스후원회 재정/운영 이사 부부이신 고재오, 김글라시아 이사님의 첫딸 '아라'의 돐사진 올립니다. 귀여운 아라와 함께 이사님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축하 둘

카리타스 후원회지 편집 Layout 및 각종 행사 포스터 디자인 봉사자이신 백경화님이 결혼하셨어요. 새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08년 1월 ~ 9월분 후원금내역 : 총 $128,836

	2008년 1월	2008년 2월	2008년 3월	2008년 4월	2008년 5월	2008년 6월	2008년 7월	2008년 8월	2008년 9월	합계
총 후원금	$23,385	$9,400	$11,722	$13,518	$19,677	$20,267	$7,714	$8,328	$14,825	$128,836
원주후원회	$6,015	$2,020	$4,352	$3,053	$2,377	$1,757	$1,989	$2,238	$1,835	$25,636
천사들의 집			$120	$50						$170
성동장애인복지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00
대건의 집	$150	$50	$150	$50	$250	$50	$150	$50	$150	$1,050
대철베드로의 집	$50	$50	$50	$50	$150	$50	$50	$50	$50	$550
루치아쉼터	$50	$600	$45	$250	$210		$200	$455		$1,810
베론성지		$120								$120
분도의 집			$120		$100					$220
살레시오의 집	$60	$60	$120		$60	$60	$60		$130	$550
삼척종합사회복지관	$2,300	$510	$1,250	$1,515	$410	$880	$700	$985	$650	$9,200
안나의 집					$100					$100
예샘의 집					$100					$100
원주복지관	$1,450	$2,530	$1,500	$2,060	$2,780	$610	$1,950	$1,610	$540	$15,030
원주비안네성소후원	$320	$10	$455	$$20	$20	$30	$25	$10		$890
제천시 노인복지관	$180	$180	$120		$280	$180	$180		$120	$1,240
청소년의 집	$50	$50	$50	$50	$150	$50	$50	$50	$50	$550
횡성종합사회복지관	$1,220	$1,260	$1,190	$180	$3,630	$1,940	$1,740	$600	$240	$12,000
흑빛공부방	$620	$1,760	$1,280	$620	$560	$620	$120	$1,780	$560	$7,920
정선프란치스코의 집			$220		$3,200		$100			$3,520
정선노인요양원					$3,000					$3,000
북한		$100		$200			$100	$100		$500
해외후원금										
네팔	$680		$120	$680	$1100	$80	$200	$200	$200	$3,260
아프리카			$120					$100		$220
인도네시아	$10,080		$120							$10,200
파푸아 뉴기니			$120	$1,140	$1,100	$860			$200	$3,420
성심원				$800						$800
사랑의 선교수사회				$2700						$2,700
에콰도르	$60		$120							$180
파푸아 뉴기니 - 울란도						$10,000			$10,000	$20,000
페루선교						$3,000				$3,000

사랑을 함께 나눌 회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회원 (일반·업소·단체·기관)	매달 12불이상이면 되실 수 있습니다. 그중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 아동결연	매달 60불씩 후원을 하시게 됩니다. 50불은 결연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며 10불은 결연아동 관할 복지관 복지 서비스를 후원합니다.
해외 아동결연 및 급식지원	1년에 $200로 아동결연이나 급식지원 후원합니다.

회비납부 방법:

1. 매 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성 정 바오로 천주교회 교육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2.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수표는 Caritas Wonju 로 써 주시면 됩니다.
3. 회비는 매달 혹은 3개월, 6개월, 1년치 회비를 한번에 내셔도 됩니다.

신규 일반·업소·단체·기관회원 가입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월	$12( ) $20( ) $30( ) $40( ) $50( ) 기타( ) *20%는 지구촌 긴급구호금으로 축적됩니다.				

고국 아동 결연 후원 신청서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고국 아동결연 $60/월 ( )			후원아동이름	

해외 아동 후원 신청서(아동결연 □ /급식지원 □)

신 청 일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E-mail	
회비	1년에 $200			후원아동이름	

절취선

원주카리타스 복지재단

Caritas Wonju International Relief, Inc.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연락처 : 571-432-9868/703-968-3010
이메일 : caritasus@gmail.com
웹사이트: www.caritaswonjuva.com

재단 이사장: 곽호인 베드로 신부
고문 변호사: 이인탁
고문 공인회계사: 노상문
재정이사: 강민식, 김글라시아, 김명철 유폴라, 조영혜, 차명자 김리나, 윤경자, 홍세실리아
운영이사: 김 데레사, 유홍열, 노상문 고재오, 김명철, 차명자 윤경자, 김글라시아, 유자경 한린다
포스터 디자인: 백경화
홈페이지 관리: 하보이
사진촬영: 지수성

본 회지는 매 6개월에 한번씩 발행됩니다.

발간인 : 곽호인 베드로 신부
편집인 : 이소영, 장도선, 하보이 김데레사, 차명자, 유자경
원고 교정 : 정영희
편집 Layout : 백경화
인 쇄 : 워싱턴 중앙일보

고국의 아동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실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가정, 또는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해체로 인하여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후원자님을 찾고 있습니다.

한달에 $60씩 후원을 하며 아이들과의 삶을 함께 나누시지 않으시렵니까 ?

후원연결이 되면 결손가정 아동에게 통장을 개설하고 $50은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하여 드리고 있으며, $10은 결연아동을 관할하는 복지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 703-539-9212 (유자경 모니카)

민지 세자매에게 사랑을

박민지(만 11세), 은지(만 9세), 수지(만 8세) 세자매는 소년소녀 가장으로 할머니가 대리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퇴직과 카드빚으로 인한 생활고로 어머니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민지가 4살 때 여동생 2명과 더불어 삼척에 거주하는 할머니(71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행방불명이며,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지는 인사성이 밝은 아동이며 동생들과 함께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며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세자매가 밝게 자라날수 있도록 후원연결이 되어 힘을 실어 주었음 합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추천**

박서진 아동 (8세)

서진이 아버지는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초등학교 6학년인 오빠와 함께 외할머니 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일을 밤늦게까지 하셔서 서진이는 방과 후 복지관 아동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방과 후 교실이 문을 닫을 때까지 복지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지만 밝고 구김살 없는 미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버지니아와 결연을 맺어 서진이의 밝은 미소를 오랫동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추천**

변지현 아동 (8세)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용직 아빠와 조선족인 엄마, 동생과 살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는 아주 어렵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지만 일찍 출근하는 부모님 때문에 늘 홀로 있어 보호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관에서도 무료로 방과 후 및 미술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현이에게 작은 행복을 나누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정영수 아동 (9세)

6개월전 아버지가 사망하였으며 이로 인해 모는 여러가지 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근로활동의 중단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다니던 학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인 생활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영수아동은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의 꿈인 경찰이 되기 위해 계속하여 노력중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단된 학원을 다니고 싶어하고 있어 후원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추천**

한세희 아동 (11세)

세희는 현재 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5년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절단의 위기까지 갔었지만 다행히 다리에 쇠를 박는 수술로 위기를 넘겼으나, 후유증이 심하여 하루라도 일을 나가면 며칠을 쉬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5-6년전에 이혼하고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세희는 산만하기도 하지만 명랑하고, 누구와도 스스럼 없이 친해지는 붙임성 좋은 성격으로 어머니의 부재로 정서적, 심리적으로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삼척종합사회복지관 추천**

장비오 (24세)

비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삶이라기 보다는 거의 동물처럼 조그마한 철장같은 우리에 갇혀 살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폭행에 시달리고 설상가상으로 간질과 발작이 너무 심한 상태였는데도 병원 문턱에도 가지도 못하고 또한 잘 먹지도 못해서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목숨만 부지하면서 살다가 천만 다행으로 우리 신부님께서 비오를 발견하시고 여기 천사들의 집에 데리고 오셔서 "장비오"라는 이름도 지어주시고 이곳 선생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져서 건강한 청년으로 학교(고3)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많은 상처가 있는 아동인데도 천성적으로 밝은 아동이여서 그런지 봉사자나 교사들을 무척 잘 따르는 편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비오를 도와주신다면 비오에게는 더 큰 생활에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박영희 아동 (여 10세)

지적장애 1급인 아동으로 주민들의 추천으로 삼남내가 입소하게 되었으며 삼남매 중 첫째입니다. 할머니께서도 남의 농사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사고로 돌아가셔서 천사들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애교가 많은 영희는 글과 숫자를 몰라서 지도를 진행중이지만 아이가 학습장애가 있어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적응하여 먼저 인사를 건네는 센스쟁이 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습과 건강면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결연아동으로 추천합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금경현 아동 (15세)

경현이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으며 예쁘고 귀여운 얼굴이라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듣는것은 가능한데 대화는 많이 힘든 편이며 자기의 의사표현은 잘 하는 편입니다. 공을 무척 좋아하며 신변처리와 일생생활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아이 입니다. 우리 경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웃음과 행복을 주는 아이로 잘 자랄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박은정 아동 (7세)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은정이는 지금 정원학교 어린이 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밝고 사람들을 좋아해서 처음 보는 사람과 금방 친해집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오면 교사에게 오늘 배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작은 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하고 자신보다 몸이 불편한 언니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착하고 귀여운 아동입니다. 가끔씩 어머니께서 찾아오셔서 은정이를 보고 가기도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은정이가 올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듬뿍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천사들의 집 추천

치주치과전문의

Perio Implant Center 강원근

인공치아 / 잇몸수술

Q 치주(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이라면 일반치과 의사들이 강원근 치주치과 전문의에게 리퍼(소개)하는 이유는?

A "각종 잇몸질환과 치아이식을 가장 성심껏 전문의의 기술로 치료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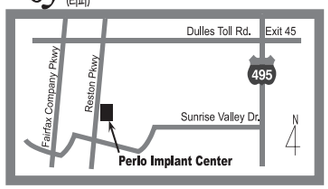
Refer (리퍼) 일반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할 때 해당 환자를 전문의에게 소개하는 의료단계

학력

Turfs 치대 졸업
Univ. of MD 치주전문의 졸업
U.S. NAVY 치주 전문의 연수
Board Eligible for Academy of Periodontology
미 치주학회 정회원
Implant 학회 정회원

진료과목

치주 진료
인공 치아 이식(Implant) 상담 치료
풍치 수술, 잇몸 성형수술



703.648.0500
11866 Sunrise Valley Dr., #101, Reston, VA 20191

www.perioimplantcenter.com

Kim's AUTO SERVICE

김씨자동차 정비센터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성껏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 신용 친절

외제차 & 국내차

대표 : 김남식

Fair City Mall근처 U.S 우체국 바로옆의 끝건물

3707 Pickett Rd., Fairfax, VA 22031 (703)425-4600

Licensed in MD & VA

New Star Realty
with Idea and Integrity

NEWSTAR realty & inv.

Lucia Kang
Realtor
703.323.4989
Top Producer 10 million plus
NVAR-Multi million dollar sales club

Office : 703.641.4989 / Fax : 703.641.0033
Email : myunghkang@hotmail.com
www.newstardc.com

Fairfax MEMORIAL

"Service Above All"
Full Service Funeral Home and Crematory

Serving All Cemeteries • Prearrangements Available
Family Owned and Operated

Fairfax Memorial Funeral Home
9902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425-9702
Peter L. Piscitelli, General Manager

Fairfax Memorial Park
formerly Calvary Cemetery
9900 Braddock Road • Fairfax, VA 22032
703-323-5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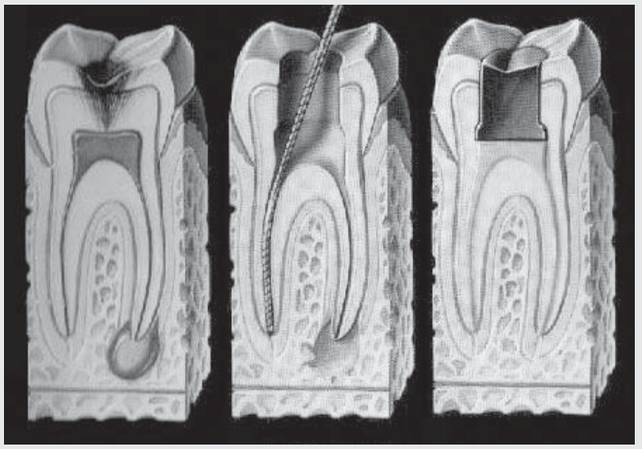
Family Owned and Operated Since 1957

ENDODONTICS-ROOT CANAL SPECIALIST

신경치료 전문의

Charlie H. Hong, DMD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703-359-4447

3554 Chain Bridge Rd., #401
Fairfax, VA 22030

정통 한의학 침구화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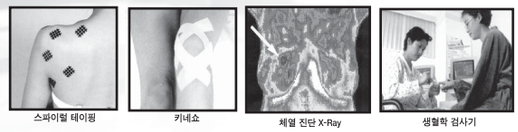
정경한의원

DC/VA/CA NCCAOM (침, 약) 면허증 소지

침

한방 서비스에도 품질이 있습니다.

정경한의원은 엄선된 약재만을 사용하며 고농도 농축시킨 탕제와 산환제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첨단 한방 진단기를 도입, 임상에 적용 진단하던 기존의 방법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환자분의 건강상태 및 관리를 체계화 시켜 드립니다.
또한, 정경한의원은 스파이럴 밸런스 테이핑 요법을 통해 신체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관절이나 근육 등의 부종과 통증을 신속하고 부작용 없게 도와 드립니다.



藥

한약 **20여년의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처방**
각종 보약 및 살빼는 약, 감기, 엘러지, 무좀, 위장병 신우선염, 고혈압 조절, 서양의학으로 어려운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드립니다.

침 특수 오행침, 전자 다이어트 침 부황, 중풍예방, 쑥뜸, 팩, 저주파

- 다이어트 – 건강을 정확히 유지하며 약제를 처방합니다.
- 성장탕 – 체질적, 연령층 및 단계별로 처방을 정확히 합니다.

정경한의원 | 703.256.0004
4119 Hummer Rd., Annandale, VA 22003

차명자 치과

Myong J. Cha, D.D.S.

모든 일반치과 진료

Office hours by Appointment

3915 Old Lee Highway Suite 22-D
Fairfax, VA 22030

(703) 273-5033

윤경자 치과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703-538-2283

6081 Arlington Blvd., Falls Church, VA 22044

칸 라디오 개국
AM 950

청취지역: 워싱턴 DC, 메릴랜드 주, 버지니아 주

보이는 라디오
재미있는 라디오
KAN 라디오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행복을 전하겠습니다.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워싱턴 곳곳에 큰 즐거움을 전할
KAN 라디오 AM 950의 출발을 지켜봐 주십시오.

KAN 950AM
워싱턴 최고의 HD 라디오 방송국

워싱턴 한인사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칸라디오 AM 950과 **카리타스**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카리타스는 11월부터 AM 950을 통해 매일 오전, 오후 두차례
복지시설 현황과 불우아동 결연 소식 등 카리타스의 활동상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KAN KOREAN AMERICAN NETWORK

Tel. 301.765.2130 | Fax. 301.765.2132 | 7825 Tuckerman Ln. # 217 Potomac, MD 20854 | www.kanradio.net

카리타스 방송 프로그램은 베데스타 Euro motor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회원님이 후원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